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예술인 대중화 지원 사업 시작

### 신규사업 론칭...장애예술인 10팀 선발 콜라보 영상 제작

### 장애 극복 자신의 예술 분야 가치 추구 스토리 영상 제작도

포스코1%나눔재단이 장애예술인 대중화 지원을 위해 '만남이 예술이 된다' 신규 사업을 론칭한다고 26일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한국장애예술인협회의 추천을 받아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 10팀을 선발 후, 전문 콘텐츠 제작사 트레저헌터(MCN사)와 협업해 장애예술인 팀 별로 5분~7분가량의 컬래버레이션과 스토리 영상을 각각 1편씩 제작했다. 제작된 영상은 포스코TV(유튜브) 및 인플루언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25일에는 '국내 자폐성 장애인 라이브 드로잉 1호 작가' 한부열과 디자이너 장형철, 박막례 할머니(DIA TV 파트너 크리에이터)의 영상이, 30일에는 '한손 피아니스트' 이훈과 가수 강민경의 영상을 선보인다. 이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매달 2팀씩 총 10팀(11명)의 특별한 영상이 차례로 공개된다.

이번 사업은 '예술과 예술이 만나 또 다른 예술을 창출하다(CollaboArtion = Collaboration+Art)'를 주제로 한부열 작가(서양화가, 발달장애), 이

훈 피아니스트(한손피아니스트, 뇌병변장애), 박한 작가(서양화가, 시각장애), 조성진 한손 마술사(미술, 뇌병변장애), 허용호 작가(동화작가, 전신마비), 최문정·채수민(휠체어댄서, 지체장애), 고아라(발레리나, 청각장애), 최예나(관소리, 시각장애), 김지연(핸디래퍼, 청각장애), 김민주(웹소설작가, 뇌병변장애) 등 장애를 가진 실력있는 예술인 10팀이 참여하고 이들의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 빅마블, 사나고, 꿀꿀선아(크리에이터), 강민경, 에릭남(가수) 등 총 14명 유명인사들이 출연해 컬래버레이션 영상을 제작한다.

또 콜라보 영상 외에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예술 분야에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는 장애예술인만의 스토리 영상을 제작해 포스코TV를 통해 대중들에게 장애 인식 변화에 대



한부열 작가와 장형철 디자이너가 콜라보레이션으로 의상 제작 작업을 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한 공감과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다. 스토리 영상을 소개하는 에릭남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예술인들의 작품과 스토리를 알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활동

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존경스러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예술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 광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5개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

증빙서류없이 10~60% 할인

광주시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이 공공시설(서비스)을 이용할 때 증빙서류 없이도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공공시설을 방문한 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즉시 감면 서비스 적용시설은 광주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실내수영장, 실내빙상장, 황금주차장, (재)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등 5곳이다.

자격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 환경자동차 등 12개로 10~6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각종 증명서 없이 감면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양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 광양읍 마산마을·진상면 창원마을, 진월면 장재마을 주민설명회

광양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양읍 마산마을, 진상면 창원마을, 진월면 장재마을 3개 지구에 대해 지난 12일,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등 주택정비와 함께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위생·안전 등 생활여건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먼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실시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양순 농촌활력팀장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마무리되면 농촌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주민



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6억 원을 투자해 광양읍 무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준공한 바 있으며, 봉강면 하조마을과 옥룡면 죽림마을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이다.

또한,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광영동 총 8개 지구에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비 563억 원을 투자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담양 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동복지관 서비스

담양군 고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광훈)는 지난 24일 하복산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복지관은 접근성이 떨어져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기 어려운 마을을 찾아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면민에게 큰 즐거움과 활력을 주는 시간이 됐다.

이날 발열체크 및 손소독,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은 각각 재능기부로 칼같이, 건강상담,

포토존 운영, 건강박수교실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참석한 한 어르신은 "평소에 거리가 멀어 이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

강성령 고서면장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욕구 해소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